

국내서 안쓰고 해외서 쓴다... 카드 해외승인금액 4조 꺾충

해외 카드 승인잔액 19조 육박
내수침체 속 카드 마케팅 딜레마
카드업계, 내수활성화 집중 예고
수수료 인하에 혜택 축소 불가피

지난해 해외에서 승인된 카드 잔액이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내수침체와 해외여행객 확보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모양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체크카드 승인잔액은 18조8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조295억원) 대비 3조8136억원 증가했다. 연간 25.4% 증가한 수치다. 이어 법인카드 사용잔액은 연간 3821억원 늘어난 4조4596억원이다. 개인·법인카드 모두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늘길이 열린 지난 2022년 이후 해외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 인구는 2868만6435명이다. 연간 6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871만4247명)과 비교하면 관련 수요가 모두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고물가



Chat GPT가 생성한 '일상 비용을 아끼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이미지.

가 겹치면서 해외여행이 합리적이라는 심리가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각각 7.0%, 8.2%씩 증가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비밀접업종 8개 중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운수업의 경우 항공, 여객 등을 의미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반면 내수시장은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여행 수요 증가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승인잔액은 연간 1.0%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종의 경우 연간 승인금액이 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세를 띤 점을 감안하면 일상 소비를 줄이고 해외여행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카드업계

는 마케팅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여행객 확보와 내수활성화 사이의 저울질이 길어지면서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트래블카드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해외여행객 확보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상생금융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내수침체를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동안 카드업계는 내수활성화에 무게를 실어 마케팅을 펼치겠다 방침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소풍쿠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행사 등을 단행하고 있다. 도·소매업 관련 소비를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마케팅 축소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본업인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고되는 만큼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헤지카드', '가성비카드' 발급 중단은 물론 상시 행사 규모도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만큼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해야한다 분석도 나온다"라며 "대형가맹점은 물론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내수침체 관련 행사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보장범위 촘촘히 확대 다모은 건강보험 S4

삼성생명은 암은 물론 뇌·심혈관질환 치료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4'를 오는 7일부터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암 치료를 폭넓게 보장했던 '다(多)모은 건강보험 S3'에서 뇌·심혈관질환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검사·진단·치료·통원·간병까지 치료 여정마다 발생하는 상황을 촘촘하게 보장한다.

'울인원케어서비스'는 납입기간(최대 20년)동안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건강상담 등 '베이지케어서비스'를, 암 진단 또는 장애 50% 이상 발생시에는 '프리미엄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흥국생명 고지기간 10년으로 ↑ 다사랑 간편건강보험

흥국생명은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입원·수술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낮춘 '무(무)흥국생명 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입원, 수술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경미한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10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을 유지해 왔다면 기존 5년 간편 고지 상품 대비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납입지원특약을 통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남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보험료 부담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문철 KB 라이프 대표이사 사장(뒷줄 왼쪽 세번째)은 지난 5일 KB라이프타워에서 개최한 'KB STAR WM' 출범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2025년 새롭게 선정된 KB STAR WM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

대우건설, 작년 매출 10.5조... 목표치 초과 달성

영업익 4031억, 당기순익 2428억
신규수주 10조... 4.2년치 일감 확보

대우건설은 6일 공시를 통해 작년 연결기준 매출 10조 5036억원, 영업이익 4031억원, 당기순이익 242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으나 당초 목표(10조 4000억원) 대비로는 초과 달성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8418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1704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1386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5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9.2%, 53.4% 감소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



대우건설 사옥.

이 시장전망치(에프앤가이드 기준 3514억원)를 웃돌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및 일부 주택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해외 플랜트사업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9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표(11조5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2024년 말 기준 44조4401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부산 남천동 주상복합(6334억원), 서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 등 국내 수주 비중이 컸으며, 기대했던 해외 수주는 다소 지연되어 올해 수주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실적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전망치는 매출 8조4000억원, 신규 수주 14조2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집값 6주만에 상승 전환... 매수심리도 반등

매매값 1월 셋째주 대비 0.02% ↑
재건축 추진단지 등 거래량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이번 주 소폭 올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셋째 주(0.00%) 대비 0.02% 상승했다. 1월 23일 이후 6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노원구(-0.03%→-0.03%)가 상계·중계동 구족,

은평구(-0.02%→-0.01%)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0.03%→0.05%)는 이촌·한남동, 마포구(0.03%→0.05%)는 도화·염리동 선호단지, 광진구(0.03%→0.0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강동구(-0.01%→-0.03%)는 둔촌·성내동, 동작구(-0.01%→-0.01%)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초구(0.03%→0.06%)는 서초·잠원동 재건축 예정단지, 송파구(0.09%→0.13%)는 신천·잠실동 선호단지, 양천구(0.01%→0.04%)는 목신

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그린1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4억9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매매가격(5억23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반대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는 1월 전용면적 60㎡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2024년 5월(20억6000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2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8로 1월 셋째 주(96.4)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나 이번 주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은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iw13@

KB라이프생명 VIP 대상 자산관리 KB STAR WM 출범

KB라이프생명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5년 'KB STAR Wealth Manager(KB STAR WM)'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VIP(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부동산, 자산승계, 법인경영 등의 분야에서 종합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KB라이프의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종합금융 전문가 조직이다.

/김주형 기자 gh471@